네이버 커넥트원에서 UFO를 볼 수 있을까?

1. 양태양 (19930120)
2. [tyyang@unist.ac.kr](mailto:tyyang@unist.ac.kr)
3. 양태양 (19930120) / 김재훈 (19941213) / 김종수 (19941219)



***“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숲 속, 밤 안개와 더불어 무척 스산한 분위기……”***

사람들이 기억하는 영화 속 대부분의 UFO목격 장면은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. ‘어두운 밤’, ‘숲 속’, ‘안개’ 등과 같은 조건들은 우리 눈에 잘 목격되지 않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기위한 필수 조건일 것 일까? 나아가서 어떤 환경조건을 만족시켜야 그들을 만나기 쉬워질까? 실제 사람들이 마주쳤었던 그 당시의 시간, 위치, 환경 정보들을 바탕으로 UFO를 마주칠 확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하여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다.

특정 장소의 지리적 특징과 환경 변수들을 바탕으로 UFO를 보기위한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한다. 과연 SF영화 속 항상 등장하는 배경은 합리적일 것인지 확인하여 보겠다.

***분석 데이터 설명***

분석에는 ‘Kaggle’에 공개된 오픈데이터 중, “미국의 UFO 관측날의 대기 질 데이터 (UFO Sightings + Air Quality)”와 “서울시 대기 질 데이터 (Air pollutants measured in Seoul)”를 사용하였다. 각 데이터셋의 변수 이름과 설명은 아래와 같다.

1. **미국의 UFO 관측날의 대기 질 데이터 (UFO Sightings + Air Quality)**

* <https://www.kaggle.com/infof422henni/ufo-air-quality>
* UFO sightings 데이터 (<https://www.kaggle.com/NUFORC/ufo-sightings>) 중 미국 지역 데이터와 U.S. Pollution Data (<https://www.kaggle.com/sogun3/uspollution>) 를 결합한 데이터셋
* 63,173개의 데이터 샘플, 24개의 변수
  1. State. Code: US EPA(미국 환경보호청)에 등록된 각 주의 인식 코드
  2. City: 도시 명
  3. State: 미국 총 50개의 주
  4. Day: 당시 날짜
  5. Month: 당시 월
  6. Year: 당시 년도(2000~2008년)
  7. Hour: 당시 시간
  8. NO2. Mean(ppb): 주어진 날의 NO2 농도의 산술 평균. NO2는 공기중의 질소와 산소가 연료의 연소시에 반응하여 생성됨, 과거 LA스모그 사건 및 산성비의 한 원인물질로서 중요하게 취급됨.
  9. NO2. 1st.Max. Value(ppb): 주어진 날의 NO2 농도 최대 값
  10. NO2. 1st.Max. Hour: 주어진 날에 최대 NO2 농도가 기록 된 시간
  11. NO2. AQI: 주어진 하루 동안의 NO2의 대기질 지수, AQI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의 인구가 건강상의 악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
  12. O3. Mean(ppm): 주어진 날의 O3 농도의 산술 평균. O3는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오염물질임.
  13. O3. 1st.Max. Value(ppm): 주어진 날의 O3 농도 최대 값
  14. O3. 1st.Max. Hour: 주어진 날에 최대 O3 농도가 기록 된 시간
  15. O3. AQI: 주어진 하루 동안의 O3의 대기질 지수
  16. SO2. Mean(ppb): 주어진 날의 SO2 농도의 산술 평균. SO2(황산화물)은 1차적 오염 물이며 화석 원료의 연소에 의하여 방출됨. 대기오염물질 중 가스상태의 것으로서 가장 문제시됨
  17. SO2. 1st. Max. Value(ppb): 주어진 날의 SO2 농도 최대 값
  18. SO2. 1st. Max. Hour: 주어진 날에 최대 SO2 농도가 기록 된 시간
  19. SO2. AQI: 주어진 하루 동안의 SO2 대기질 지수
  20. CO. Mean(ppm): 주어진 날의 CO 농도의 산술 평균. 무색,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서 탄소성분이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발생
  21. CO. 1st. Max. Value(ppm): 주어진 날의 CO 농도 최대 값
  22. CO. 1st. Max. Hour: 주어진 날에 최대 CO 농도가 기록 된 시간
  23. CO. AQI: 주어진 하루 동안의 CO의 대기질 지수
  24. ET: UFO(미확인 비행 물체)관찰이 이루어진 경우 1,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본다

1. **서울시 대기 질 데이터 (Air pollutants measured in Seoul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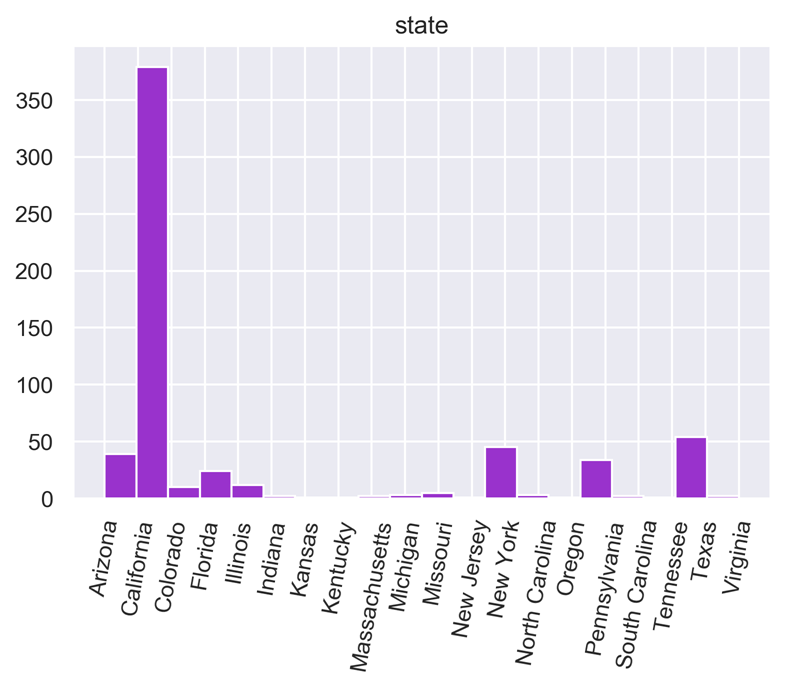
* <https://www.kaggle.com/jihyeseo/seoulairreport>
*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서울시 지역구별 공기 질 데이터셋
* 4,225개의 데이터 샘플, 8개의 변수
  1. 측정일시: 측정을 시작한 날짜와 시간
  2. 측정소명: 측정을 한 서울시 내의 위치
  3. 이산화질소 (NO2) 농도 (ppm): 1시간 동안 측정한 이산화질소의 평균 농도, 14년 경기의 연평균 농도가 0.034ppm으로 최고, 광주가 0.019ppm으로 최저
  4. 오존 (O3) 농도 (ppm): 1시간 동안 측정한 오존의 평균 농도, 14년 서울의 경우 0.023ppm 인천과 경기는 0.026, 0.025 ppm
  5. 일산화탄소 (CO) 농도 (ppm): 1시간 동안 측정한 일산화질소의 평균 농도, 수도권 오염도는 0.5~0.6 ppm
  6. 아황산가스 (SO2) 농도 (ppm): 1시간 동안 측정한 아황산가스의 평균 농도
  7. 미세먼지 (㎍/㎥): 1시간 동안 측정한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, 입자의 지름이 10㎛ 이하인 경우 미세먼지로 불리며 호흡시 폐포에 침투함
  8. 초미세먼지 (㎍/㎥): 1시간동안 측정한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, 입자의 지름이 2.5㎛ 이하인 경우 초미세먼지로 불리며 호흡시 폐포에 침투한다.

두 데이터셋간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“UFO sightings + Air Quality” 데이터 중 \*.1st.Max, \*.1st.Max, \*.AQI 변수와 “Air pollutants measured in Seoul” 데이터셋의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 변수를 제거하였으며, 각 데이터셋의 변수 단위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다.

*UFO가 잘 관측되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?*

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“UFO sightings + Air Quality” 데이터셋 중 UFO가 관측된 샘플 (ET=1)로부터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: 지역, 시간, 대기조건

1. **지역: 해안과 내륙 지방 중 어디에서 UFO가 많이 보일까?**
   1. **어느 주 (state)에서 UFO가 많이 관측되었을까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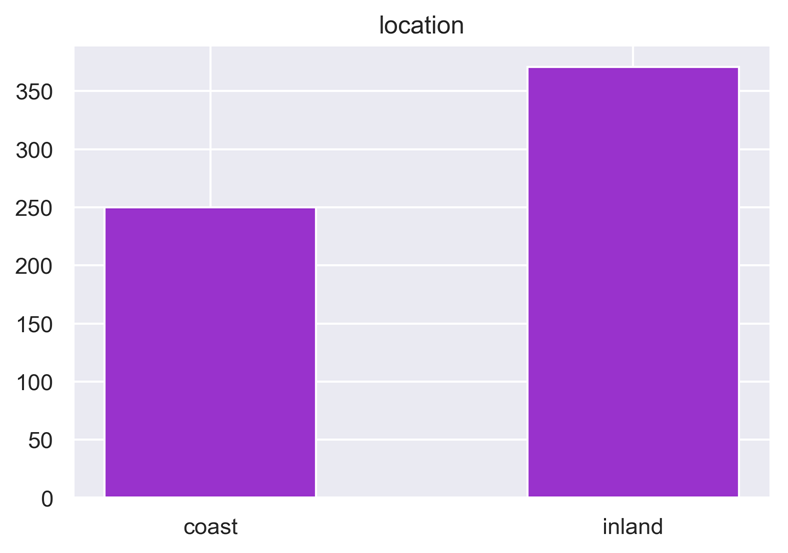
****

**Insight:** California 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, Texas, New York, Pennsylvania, Arizona 주가 그 뒤를 이었다.

* 1. **UFO가 관측된 city 위치를 해안(coast) /내륙(inland) 지역으로 나누어 보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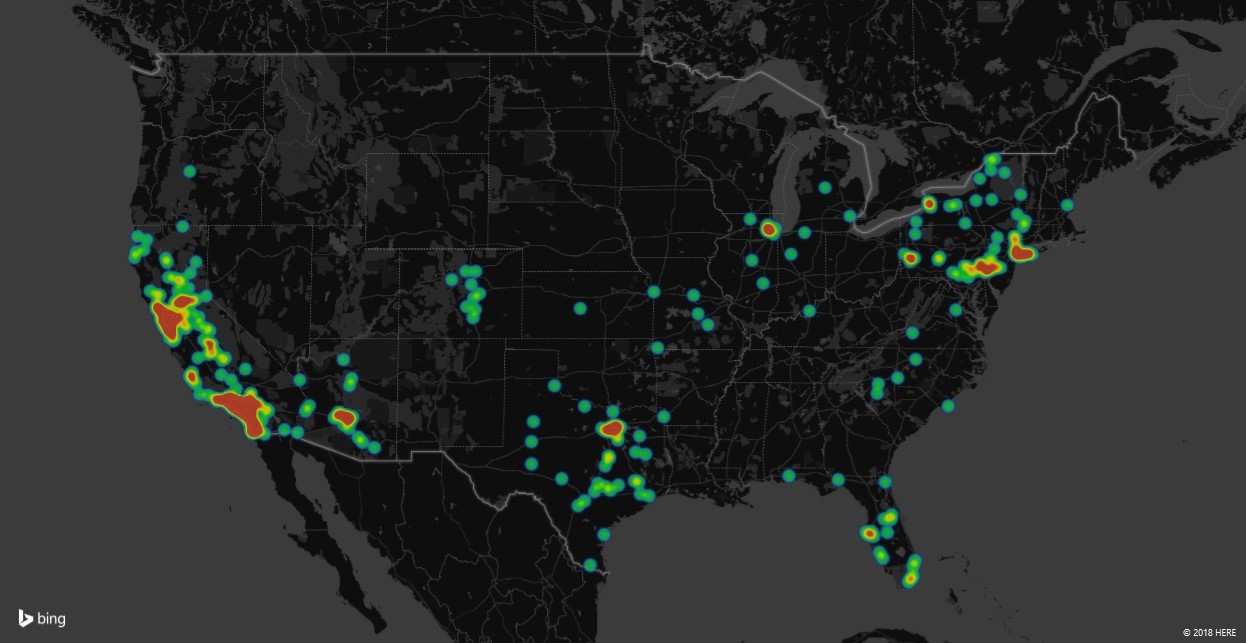
앞의 결과와 같이 state 별 분석이 가능하지만 UFO 운전수에게 인간의 행정구역은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다. 따라서 **각 UFO가 관측된 도시(city)의 위치가 해안으로부터 20km 내에 있을 경우를 “coast”, 그 외를 “inland”로 나누었다**. 또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해안 지역의 면적을 계산하였다.

* + 알래스카 주를 뺀 미국 본토 국토 총 면적: 8,080,510 km^2
  + 해안(coast) 지역 총 면적 = 해안 지역의 총 길이 (9,027km) \* 20km = 180,540 km^2
  + 내륙(inland) 지역 총 면적 = 8,080,510 km^2 - 180,540 km^2
  + **해안(coast) : 내륙 (inland) 면적 비 = 2.23 : 97.77**
  1. **해안과 내륙 지방 중 어디에서 UFO가 많이 보일까?**

****

**Insight:** 내륙 지역에서 관측된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다. 하지만 미국 전체 국토 중 우리가 정의한 Coast 지역의 면적이 압도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안 지역에서 UFO가 더 많이 관측되었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“지역”은 UFO 관측에 있어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.

* 1. **미국 본토 지도 위에 관측위치 분포를 그려보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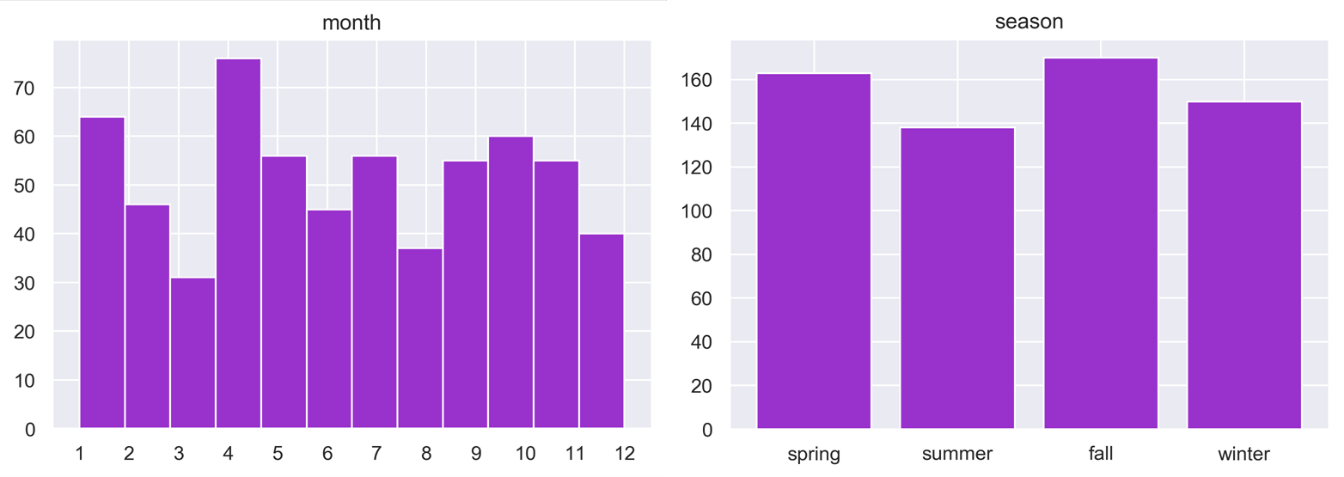


**Insight:**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UFO 관측 보고가 해안과 가까운 지역 (예: 캘리포니아 주)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.

1. **시간: UFO가 많이 보이는 계절, 시간대가 있을까?**
   1. **UFO가 많이 보이는 “계절”은 언제일까?**

아래와 같이 month 변수를 season 변수로 나누어 UFO 관측 시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았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Spring: 3-5월** | **Summer: 6-8월** |
| **Fall: 9-11월** | **Winter: 12-2월**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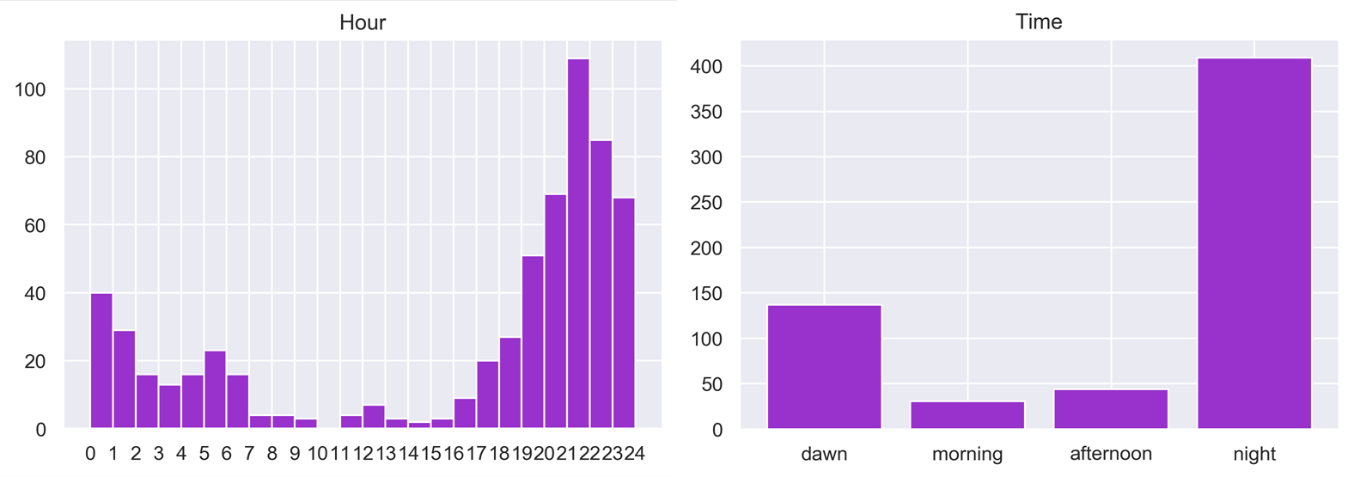


**Insight:**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, 계절단위로 보게 되면 큰 차이는 없다. 따라서 “계절”은 UFO 관측에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. 각 계절간 n수가 3개뿐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분석은 하지 않았다.

* 1. **UFO가 많이 보이는 “시간”은 언제일까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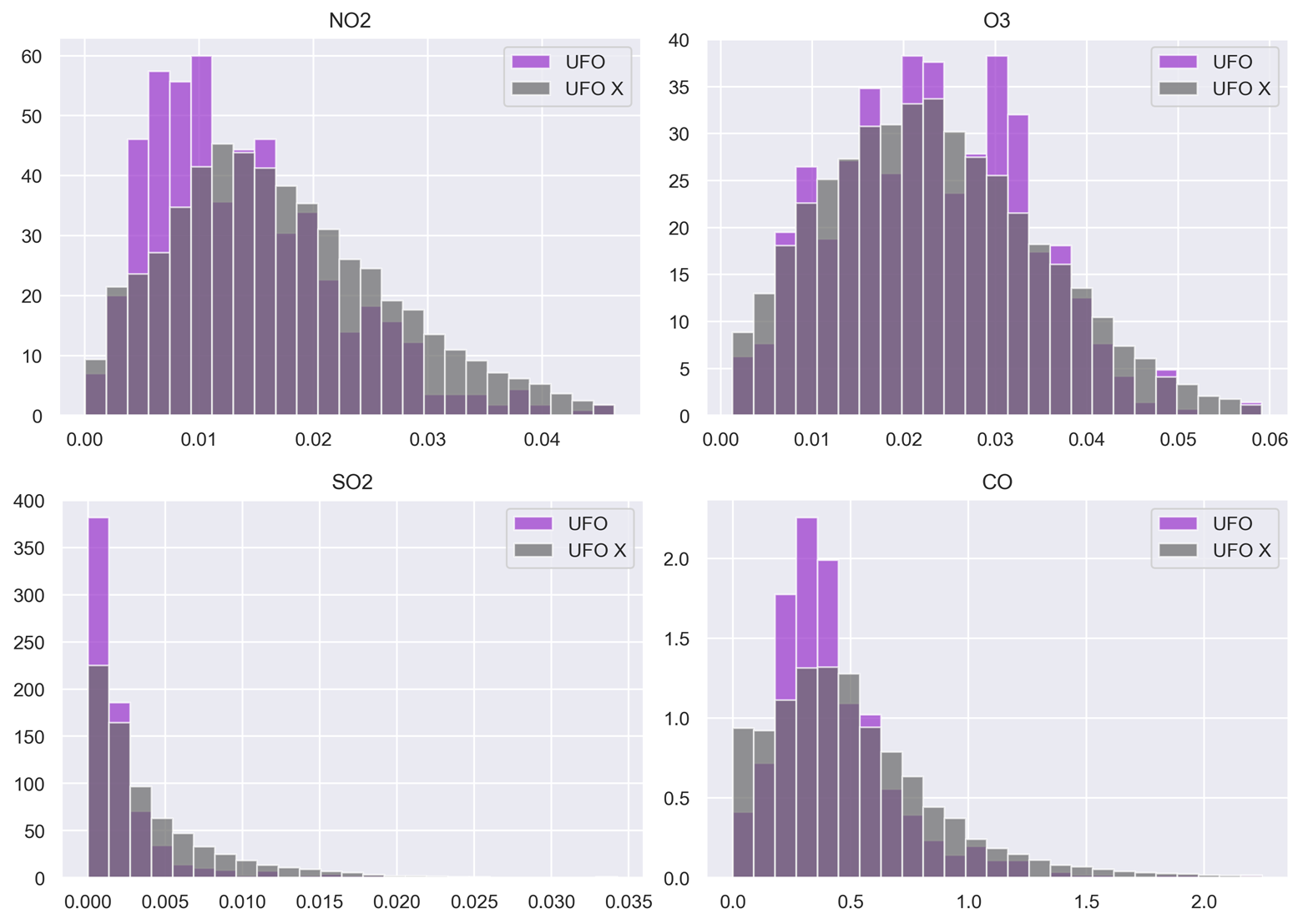
아래와 같이 hour 변수를 time 변수로로 나누어 UFO 관측 시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았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Dawn: 0-6시** | **Morning: 6-12시** |
| **Afternoon: 12-18시** | **Night: 18-24시** |



**Insight:** 오후, 아침처럼 날이 밝을 때 보다는 밤, 새벽에 UFO가 가장 많이 관측되었다. UFO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“시간” 조건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1. **UFO가 많이 관측되는 대기조건이 있을까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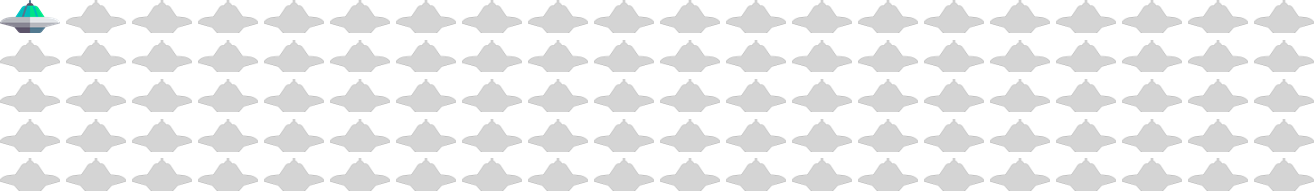
****

**Insight:** 대기질을 나타내는 4가지 지표 중 UFO가 관측될 때(UFO)와 관측되지 않았을 때(UFO X)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표는 NO2 밀도다. CO 밀도, SO2가 그 다음으로 눈에 띄며, O3 밀도는 큰 분포차가 나타나지 않았다. 분포 사이의 유사도는 Mutual information 등을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겠으나, 본 분석의 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.

*우리 나라에서 UFO를 볼 수 있었을까?*

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“UFO sightings + Air Quality” 데이터셋으로 예측 모델을 훈련시킨 후, **“**Air pollutants measured in Seoul” 데이터셋에서 UFO 관측 가능여부를 예측해보기로 했다.

1. **“UFO sightings + Air Quality” 데이터셋의 문제점: Imbalanced dataset**



“UFO sightings + Air Quality” 데이터셋은 **UFO 관측 시의 샘플(ET=1)이 622개로 전체 데이터 63,174개의 1%가 채 되지 않는 imbalanced dataset (Imbalance Ratio, IR = 101.57)이다**. Decision tree, Logistic regression 등 대부분의 분류 알고리즘은 imbalanced dataset을 훈련시킬 경우 샘플 수가 많은 쪽에 편향된다.

* + **Re-sampling**

Imbalanced dataset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, 다수 그룹(ET=0)의 데이터샘플을 under sampling하거나 소수 그룹(ET=1)의 데이터샘플을 over sampling하는 것이다. 이 외에도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hybrid sampling 방식과 k-Nearest Neighborhood 알고리즘을 이용한 SMOTE (Synthetic Minority Over-sampling Technique) 등의 방법들이 있다. Undersampling과 oversampling은 각각 데이터에 있는 중요한 정보가 소실되거나, 훈련 데이터 중복으로 과적합(Overfitting)될 가능성이 존재한다. 각 Resampler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**이번 분석에서는 random under sampling, random over sampling 및 SMOTE resampling을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비교해보았다*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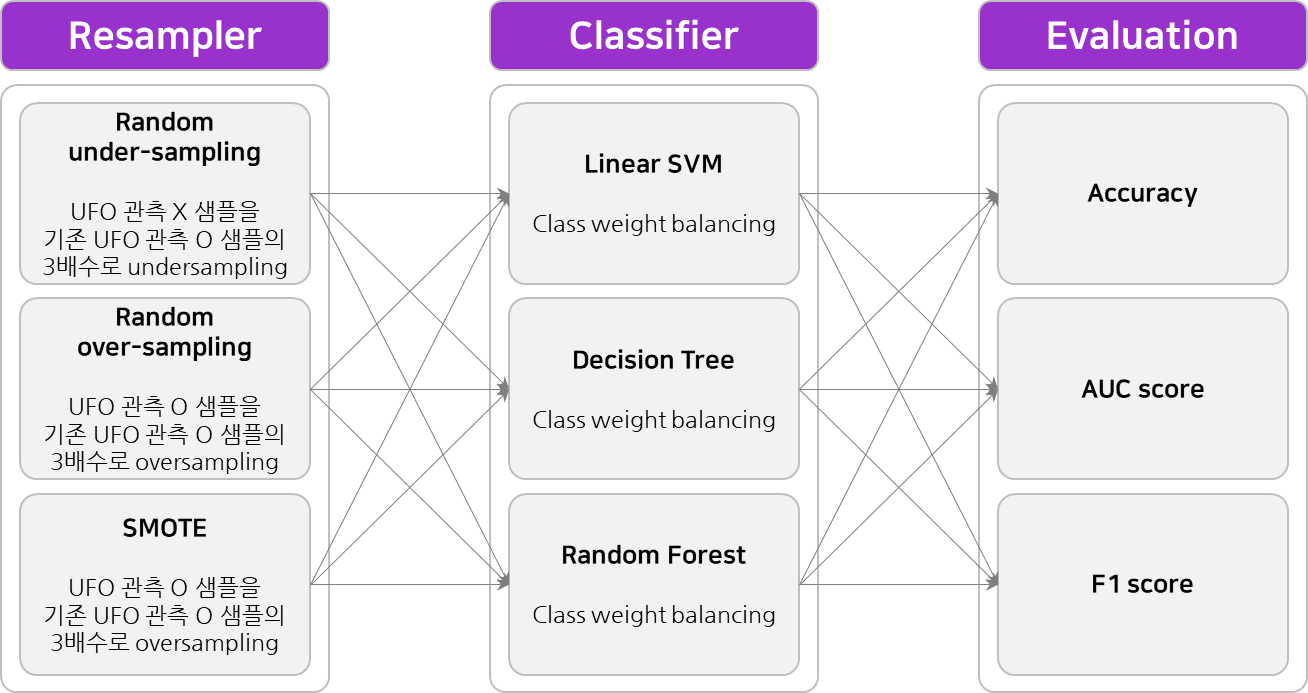
* + **Class weight balancing**

Imbalanced dataset을 처리하는 두번째 방법은 모델 훈련 시 각 class 분류에 weight를 주는 방법이다. 즉, 소수 그룹에 해당하는 샘플을 분류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. 우리가 사용한**데이터셋의 IR이 너무 높아 resampling 방법만으로는 imbalanced dataset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class weight balancing 또한 함께 사용하였다.**

1. **UFO 관측 적합조건 예측 모델**
   1. **UFO 관측 적합조건 예측 모델 선택**

**UFO 관측 적합조건** **예측을 위한 모델로** **Support Vector Machine, Decision Tree Classifier, Random Forest Classifier**를 선정하였다. 위 모델들은 Python 언어의 Scikit-learn package로 간단히 구현할 수 있으며, class weight balancing을 파라미터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어 선정되었다.

* 1. **UFO 관측 적합조건 예측 모델 훈련**

****

**[변수]**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**14개의 변수**는 아래와 같다. 이 중 10개의 **Categorical variables는 one-hot encoding** 된 형태로 모델에 사용되었다.

* + - [*Location*] Categorical variables (2) – Location, Coast
    - [*Season*] Categorical variables (4) – Spring, Summer, Fall, Winter
    - [*Time*] Categorical variables (4) – Dawn, Morning, Afternoon, Night
    - [*Air* *quality*] Numerical variables (4) – NO2, O3, SO2, CO

**[Resampler 와 Classifier]** 3개의 샘플링 방법과 3개의 분류 모델로 이루어진 파이프라인으로 모델을 훈련시켰다. 평가지표 추출은 10-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되었다.

**[모델 평가방법]** 정확도 (Accuracy)는 accuracy paradox 문제로 Imbalanced dataset에 적합한 지표가 아니다. 따라서 **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로 AUC (Area Under ROC Curve)와 F1 score를 함께 사용했다**. 두 지표는 아래와 같은 Confusion matrix에서 계산될 수 있다. 우리 분석에서는 Scikit-learn package의 roc\_auc\_score, f1\_score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UFO 관측조건 O 예측 | UFO 관측조건 X 예측 |
| 실제 UFO 관측조건 O | *True Positive (TP)* | *False Negative (FN)* |
| 실제 UFO 관측조건 X | *False Positive (FP)* | *True Negative (TN)* |

* + - AUC

AUC는 특이도(Specificity)와 민감도(Sensitivity)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며, 0.5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성능이 없고 1에 가까울수록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.

* + - F1 score

F1 score는 정밀도(Precision)와 재현율(Recall)의 조화평균으로 정의되며, 큰 값일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.

* 1. **UFO 관측 적합조건 예측 모델 성능 비교 및 최종 모델 선정**

Decision Tree, Random Forest 분류기에서 전체적인 성능이 좋게 나타났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Resampler | Classifier | Accuracy | AUC | F1 score |
| *Random under sampling* | *Support Vector Machine* | 0.727 | 0.790 | 0.676 |
| *Random under sampling* | *Decision Tree Classifier* | 0.754 | 0.677 | 0.679 |
| *Random under sampling* | *Random Forest Classifier* | 0.816 | 0.809 | 0.710 |
| *Random over sampling* | *Support Vector Machine* |  |  |  |
| *Random over sampling* | *Decision Tree Classifier* |  |  |  |
| *Random over sampling* | *Random Forest Classifier* |  |  |  |
| *SMOTE* | *Support Vector Machine* |  |  |  |
| *SMOTE* | *Decision Tree Classifier* |  |  |  |
| *SMOTE* | *Random Forest Classifier* |  |  |  |

**Insight:** Decision Tree, Random Forest 분류기에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타났다. Random over sampling과 SMOTE 샘플링 방식일 때 성능이 좋게 나타났다. 다만, Over sampling 방법의 단점인 과적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.

* 1. **변수 중요도 확인**

분석으로는 Scikit-learn package의 feature\_importances\_함수를 사용하여 변수 중요도를 확인해 보았다. Decision Tree와 Random Forest의 장점 중 하나는 각 독립변수의 중요도(feature importance)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. 모델안에서 사용된 모든 노드에 대해 어떤 독립변수를 사용하였고 그 노드에서 얻은 information gain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얻어낸 information gain의 평균을 비교하면 어떤 독립 변수가 중요한지를 비교할 수 있다.

다음은 UFO 관측조건 예측 모델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했던 \_\_\_을 사용한 \_\_\_모델의 변수 중요도를 확인해본 그래프이다.

1. **[Test 1]**

“UFO sightings + Air Quality” 데이터셋으로 UFO 관측 적합조건 예측 모델을 훈련시킨 후, **“**Air pollutants measured in Seoul” 데이터셋에서 UFO 관측 적합조건을 예측해보기로 했다. 하지만 서울시 대기 데이터의 경우 UFO가 관측되었는지는 알 수 없기에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자.

**###내용###**

미국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킨 뒤, 서울시 데이터로 테스트해보았다.

#그림

-에 볼 수 있었으며, 이 시기의 대기 조건은 아래와 같다.

#테이블

*네이버 커넥트원에서는 UFO를 볼 수 있을까?*

마지막으로,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다면 집중교육을 받게 될 커넥트원에서는 UFO를 볼 수 있을까?

1. **데이터 수집**

대기 질 데이터를 한달 후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질문에 답할 수 있겠지만, 여기에는 너무 많은 Confounding factor가 존재하여 예측이 어렵다.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**과거 동일한 날짜 (8/27-29)에 UFO를 관측할 수 있었을 지 알아보았다**. 국내 각 지역의 시간별 대기질 데이터는 에어코리아 (<http://www.airkorea.or.kr/realSearch>)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사이트는 2017년에 개설되어, 이전 년도의 데이터는 구할 수 없었다.

1. **예측**

**과연 2017년도 8월 27일-29일은 UFO를 볼 수 있는 시기였을까?**

#그림